

대만은 “주변국을 앞선 연구 개발 거점”으로 자리 잡아

대만방직업척전회(台灣紡織業拓展會)는 2006년 11월에 오사카에서 “판 텍스타일 페어(Pan Textile Fair)”를 개최하고 “아시아의 다른 여러 나라들보다도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차별화 소재와 안정된 품질을 봐주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또한 중국의 섬유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아시아 섬유 산업의 현상에 대하여는, 대만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제휴하고, 일체화(一体化)하려는 배경에는 개발 거점으로서 대만이 우위성(優位性)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만에서는 죽탄(竹炭)을 배합(配合)한 항균 섬유나 대두단백(大豆蛋白) 섬유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형단면사(異型斷面絲)로 만든 흡한속건(吸汗速乾) 소재도 정번화(定番化)하고 있다.

대만방직업척전회에서는 “중국 기업의 공세가 세기는 한데, 염색 기술 수준, 대만 기업이 갖고 있는 국제 네트워크(network), 차별화 상품의 개발에서는 대만 기업이 중국보다도 앞서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판 텍스타일전에서도, 대만이 여러 차별화 소재를 중심으로 중국이나 타이, 인도 등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웃돌고 있는 대만 기업의 개발력과 안정된 공급 능력을 일본의 바이어에게 보여줄 기회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또한 대만 섬유 산업의 현상에 대하여 언어나 문화면에서 공통성(共通性)이 강하므로, 대만 기업은 일찍부터 중국 대륙에 수평적(水平的)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지금은 중국 대륙에 생산 거점을 갖고 있지 않는 기업을 차지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며, 대만과 중국의 경제적 제휴·일체화를 전제로, 대량 생산 거점으로서의 중국과 연구 개발 거점으로서의 대만으로 서류 업무를 나누어 맡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2005년의 대만 섬유 제품 생산량은 금액으로 약 118억 달러인데, 이에 중국에서 생산된 대만 기업의 몫을 합하면, 약 50억 달러를 얻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봉제를 중심으로 대만 기업이 갖고 있는 기동력을 살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으로 사업을 벌려 나가는 것도 활발하다.

앞으로 대만 섬유 산업은 연구 개발력의 거점으로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그렇지 못하면 대만 섬유 산업에는 미래가 없다는 소신을 밝혔다. ♣